

친환경 그린마케팅 실천, 골판지 업계 선도

숯 및 활성탄 도포한 기능성 박스 판매, 신선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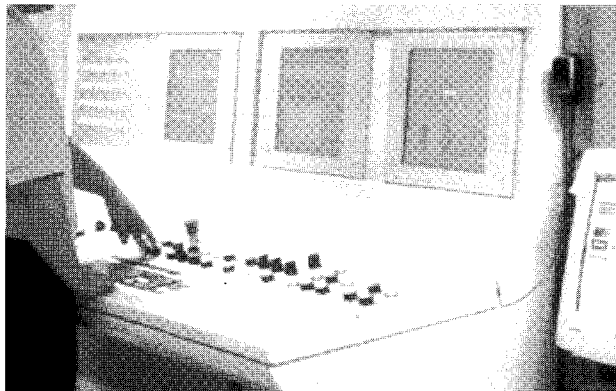
류종우
삼보판지(주) 대표이사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단계적 철폐 방침으로 극한 난고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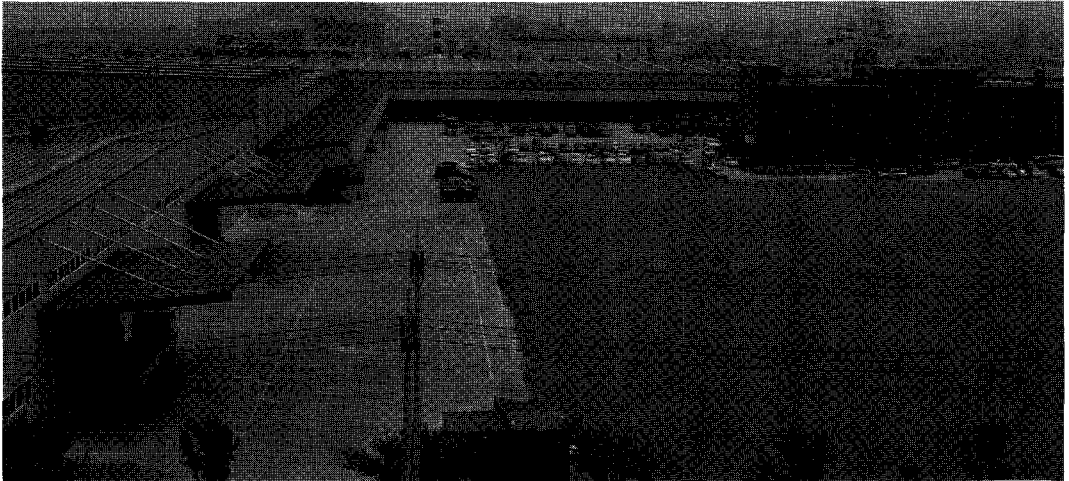
특히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단계적 폐지가 시행될 경우, 골판지, 플라스틱, 유리, 두부 등 제조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전통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판지 업계도 예외는 아닐 터.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설비 및 기술투자에 주력하는 한편, 골판지 업계 최초로 친환경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을 실천하고 있는 삼보판지(주)(대표이사 류종우)를 찾았다.

1973년 3월 삼보판지공업사 설립된 삼보판지(주)는



▲ 전산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삼보판지(주) 전산실



▲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삼보판지(주) 전경

1981년 삼보판지공업(주)으로 법인전환 후, 부천시 춘의동에 제1공장을 준공하면서 발전, 1999년 현재의 삼보판지(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1987년 8월 현재의 류중우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삼보판지(주)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생산업체 단일기업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의 골판지 포장업체로 성장해 왔다.

특히 류 사장은 취임 직후 전산 기계를 도입, 87년, 업계 최초로 전산경영을 실천, 94년 12월 골판지업계 최초로 지합소와의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게 된다.

골게이터 가격의 두배 이상을 호가하던 전산기계를 구입

한 일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업계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터.

하지만, 앞선 경영을 시도한 그의 방침은 '98 기업정보화 대상 중소기업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로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기업정보화 대상 수상을 기점으로 삼보판지(주)는 전산 정보 시스템(ERP, SCM)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최첨단 설비들을 도입,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형태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외부 포장용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삼보판지(주)는 현재 골판지 원단과 합

계 규격과 모양이 다양한 박스를 주문 생산하고 있다.

가전제품박스, 식음료박스, 농축수산물박스, 칼라박스, 변형박스, 대형박스 등의 모든 품목을 양면골판지상자(A골, B골, E골), 이중양면골판지상자(B/A골, B/B골, E/B골)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의 BHS사 미국의 MARQUIP, 일본의 ISOWA와 ICHIKAWA사, 프랑스의 MARTIN과 SODEM 사로부터 최첨단 기계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등 골판지 업계의 선도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과 시

Sam Bo

화공장의 K.S표시허가 및 KSA 9002/ISO 9002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품질경영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삼보판지(주).

친환경에 일찍부터 관심을 쏟은 류종우 사장은 품질경영 및 친환경 경영을 통한 우수제품 생산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다.

삼보판지는 류 사장의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실천 결과, 지난 7월 골판지 업계 최초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 취득하면

서 친환경 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지난 해 12월, 삼보판지 전 임직원들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친환경적 동향에 발맞춰, 환경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전사적인 그린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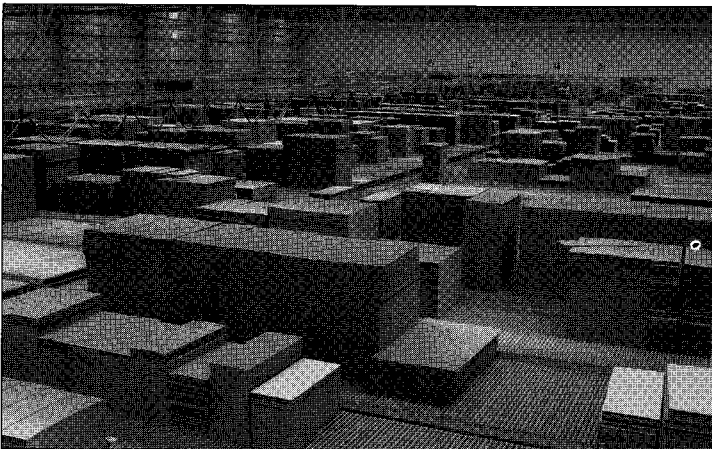
그린 조직을 통해 삼보판지(주)는 환경저해 요인을 명확히 분석관리하고 공정별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환경등록부에 등록, 집중관리했으며 생산현장의 미세한 먼

지도 주변환경과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 아래 지분 흡입시설을 대폭 증설하여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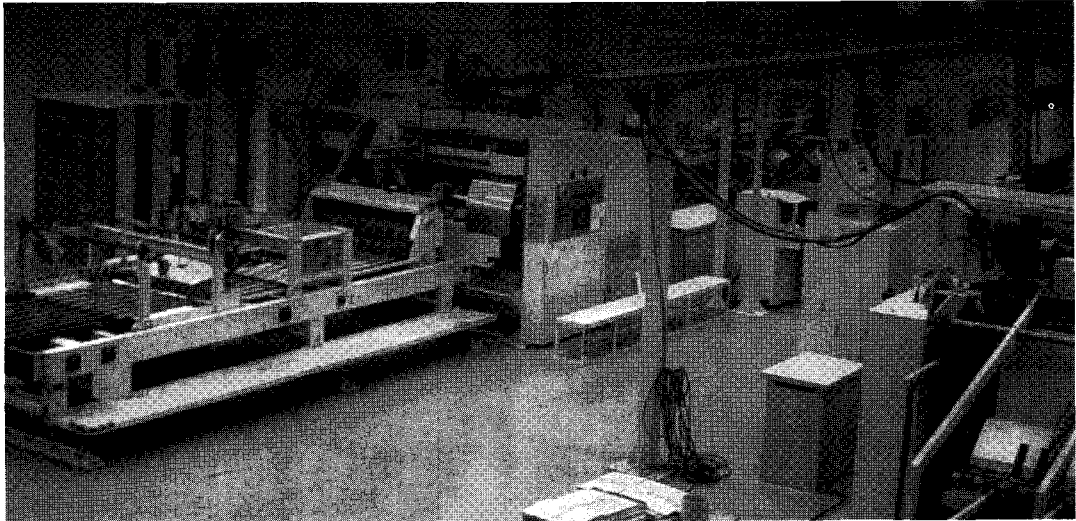
류종우 사장은 "친환경 경영은 현재,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업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녹색구매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친환경'이라는 국제적 관심과 고객의 요구, 구매 경향을 이해하고 그동안 환경경영에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온 삼보판지(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 경영의 연장선에서 친환경 제품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삼보판지(주)는 또한 이번달부터 골판지 골 및 속지에 참숯 및 활성탄의 기타 재료를 접착물로 부착해 도포된 기능성 박스를 판매하게 됐다.

이 제품은 협력업체가 특허



▲ 삼보판지(주) 원단적재장



▲ 삼보판지(주) 공장전경

를 등록, 삼보판지(주)가 위탁 생산하게 된 기능성 박스로 냅 새제거 및 미생물 번식과 부패를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채소 과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0여명의 임직원들을 이끌고 있는 류종우 사장은 직원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노사협의회에 100% 참석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에도 애쓰고 있다.

그의 직원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본사에 펼쳐진 3천평 규모의 잔디구장, 휘트니스 클럽(Fitness club) 통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노력

으로 삼보판지(주)는 이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창립 이래 노조가 없는 업체로 유명하다.

현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류종우 사장은 삼보판지(주)의 발전 뿐 아닌 골판지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는 “원지 가격 급등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과당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계 자체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구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품질 개선을 통해 기능성 제품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서 “연관산업인 제지, 골판지, 지합, 파지 업계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는 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해 삼보판지(주)는 외형적 증설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생산에 주력하면서 골판지 업계의 그린 경영 선도기업으로 친환경시장에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친환경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삼보판지(주)가 고객 신뢰와 만족을 꾀하며 골판지 포장업계를 선도하길 바란다. ☐

박초혜 기자